

1. 생활인의 새로운 좌표

-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중에.....☐
- ☐.....서도 행복이나 멋, 죽음에 대해 대화를.....☐
- ☐.....나누다가 보면 지금의 내게 심한 불안.....☐
- ☐.....을 느끼게 되다. 공부나 책만으로는 내.....☐
- ☐.....게 줄 수 없는 생활에의 예지는 과연.....☐
- ☐.....어떻게 구해지는가?☐

1. 무엇인가 잘못 되어 있다

교 사 조 창 호

아침을 들 겨를도 없이 교단에 스는것이 예사요, 시간이 촉박해서야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숨가쁘게 교실에 뛰어들어 오는 것이 상례가 되었습니다. 교단에서 고작 돈 독촉하는 일이 스승의 본분이 되었고 마치 부도덕한으로 전락되 스승으로부터 멀어만 가는 가운데 알맹이 없는 학교 교육이 된것 같습니다.

사랑의 종이 울린 지도 벌써 오래인데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오늘도 한밤중의 거리에서 취객의 틈을 누비며 귀가하는 여학생의 모습이 측은하게만 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게 그 머리속에는 무엇을 담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것일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다하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에 교육의 정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이 도시 잠꼬대로 밖에 들리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은 고쳐져야 한다. —

이것이 인성의 자랑이고 드러내보일만하고 뽐낼만한 것이라고 내세울수 있는 것이있을까? 지식과 사랑의 전당 「인성학원」 공부하는 학교. 너무 미화된 이야기 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숙연한 태도로 자학자습하는 분위기는 되어 있는가? 도서실은

시험 때에만 채도하고 시험이 닥쳐야만 밤새워 공부하는 버릇이 있고 상급반이 되어야만 그제서야 공부를 서둘러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가장 경건스러운 태도로 임해야 할 예배시간조차도 믿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플이 아니라 차라리 간담회를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상 싶습니다. 미상불 인성 학생은 역시 예의 바르다. 최소한도 인사성만은 밝다고 듣고 싶은 말입니다. 나락은 여물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웬지 키가 자랄수록 인사하는 것이 어딘지 부자연하게만 보입니다. 차라리 이 점만은 어린 학생인채 그대로 있는 것이 나을상 싶습니다. 우리는 질서 없이는 자유가 있을 수 없고 참 자유 없이는 최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압니다. 학원 질서 교칙을 얼마 만큼 잘 준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명찰하나 다는 것도 잔소리를 들어야 달고 두발을 째야 주워야 제대로 째줄 아는 데야 어찌 자유인이며 봉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학생회가 있고 학원회의가 있고 학교는 이것들을 위해 성의를 다하는데 모든 회원마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서야 민주적인 시민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미흡한 것 잘못된 것 들추어 보려고 하니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

시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살릴 것은 살려서 아름다운 교풍, 자랑할 만한 전통을 우리 스스로가 가꾸어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 이것이 인성인이다 —

애국 조희시마다 제창하고 교실마다 정면에 제시된 「신앙·자유·봉공」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지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심어져야만 하고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할 생활표어이 기도 합니다. 인성인은 신앙인이요, 자유인이요, 봉공인입니다. 진리가 저 푸른 자유의 대공으로 이끌어 줄 것을 믿고, 있는 정성을 다해 가능한 시간과 노력을 다 바쳐서 진리를 쫓는 신앙인 진리대로 살기에 인류 최대의 적인 무지와 빈곤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참자유인 소경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봉공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성인가? 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있는 삶의 영위자인가 과연 인성인 다운 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 이것이 인성인의 멋이다 —

비록 외양은 초췌하고 어딘지 보기엔 보잘것 없이 보일런지 모르지만 인성인은 역시 인성인입니다. 어떠한 가치관에서 무어라고 평하건 말건 상관 없습니다. 제 나름의 자랑을 간직할뿐 드러내 보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성의 참 아름다움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코
멋은 아닙니다. 교양있게 보이는 그
런 정도의 멋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아름답게 감지될 수 있는 그
것입니다. 인성인은 인성인다운 멋이
있습니다. 신앙인이기에 언제나 겸손
하고 비어 있는 마음을 지녔고 창조
주의 뜻을 받들어 진과 미를 일상 생
활속에 창조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

려고 애쓰는 그 마음에는 정직 · 친절
· 감사 · 청결 그리고 순결의 멋이 넘
쳐 흐릅니다. 순결은 인성인의 생명
입니다. 최고의 멋이기도 합니다. 이
것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인성인이여! 인성인다운 참멋을
을 간직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인성인
다운 멋의 향기를 곳곳마다 내 품기
여 보다 복되게 할 수 있다면 이 얼
마나 보람있는 일이겠는가!